

반월시화공단 환경개선 사업 전개

경기도, 대대적 청소·정리정돈 운동 추진 ... 회색 이미지 탈바꿈

경기도는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아름다운 공단환경 가꾸기>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1월17일 밝혔다.

경기도의 방침은 공단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각종 환경오염 문제로 공단 뿐만 아니라 해당 도시까지 회색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1월부터 매주 첫째주 금요일을 <아름다운 공단환경 가꾸기의 날>로 정하고 입주기업 내·외부 청소 및 정리정돈은 물론 불법 홍보물 제거, 도로·하천 쓰레기 줍기 등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장 담장에 덩굴장미나 담쟁이 등을, 자투리땅에 개나리, 목련 등 각종 꽃나무를 심고 <1인 1화분 갖기> 등을 통해 공단분위기를 녹색으로 탈바꿈하기로 했다.

이밖에 안산시 소재 서울예술대학과 공동으로 공장 담장에 벽화그리기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벽면에 그림을 그려주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단이 악취나 환경오염을 내뿜는 회색공단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해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며 “입주기업의 자율참여를 최대한 유도하고 시군과 유관단체의 협조를 이끌어내 쾌적하고 깨끗한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월시화공단은 안산시 성곡동, 목내동, 신길동과 시흥시 정왕동 일대 3194만㎡에 조성된 국내 대표적 산업단지로 반월 2567개, 시화 4923개 등 모두 7490개 회사가 입주해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1/17>